

광주 땅 속 상수도관 '불안'

30년 이상 노후관 15% ... 부식으로 누수를 높고 건강 위협
상수도 행정 책임자들 전문성 없고 교체사업은 뒷전 밀려

올해로 수도물 공급 100년을 맞은 광주 시의 상수도 행정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광주는 전국 특·광역시 중 땅속으로 버려지는 수도물 누수율이 가장 높고, 아연도 강관이나 회주철관으로 만든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잇을 만하면 터지는 수도물 오염 사고다. 상수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구성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수백억원대의 봉선동 배수지 사업 등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정기 사급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등이 뒷 순위로 밀리고 있는 탓이다.

보다 못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상수도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상수도 관련 전문 공무원의 수가 적고 그나마도 장기 근무에 따른 관련 업체들과의 유착설 등도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어 혁신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일 광주시와 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에 첫 수도물이 공급된 것은 1920년 5월 20일이다. 광주의 상수도 총 길이는 3933km로, 20년 이상된 관로는 전체 48.26%인 1896km다. 이 중 1988년 이전 제작된 30년 이상된 관로는 전체 14.57%인 573km에 이른다.

노후 상수도관은 대부분 아연도 강관을

나 회주철관으로 구성돼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 1993년까지 상수도관으로 쓰였던 아연도 강관은 내부가 빠르게 부식되는 철로 돼 있고, 회주철관은 내부 코팅소재가 벗겨지는 탓에 1980년대 후반부터 신설 상수도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지고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과 일부 중금속을 포함한 수도물이 풍암·금호지구, 화정동 등지로 공급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엔 서구의 한 아파트로 이물질 섞인 수도물이 유입되는 등 노후 상수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후 상수도관은 상수도 누수율의 주범이기도 하다. 광주의 상수도 누수율은 2015년 기준 13.3%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인 8.6%보다 높다. 서울(4.9%)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광주 상수도 누수율을 수도물양으로 환산하면, 연 평균 1800 t 이상의 수도물이 누수되고 생산 원가 기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수도물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다. 하지만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더디기만 하다. 시는 2000년대 들어 20년 이상된 노후관 중 30% 수준인 665km를 교체하는 데 그쳤다.

이는 광주시가 가장 사급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뒷전인 채 배수지 공사 등 사실상 후순위 사업에만 막대한 예산

을 쏟아 붓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시는 올해까지 총 사업비 455억여원을 들여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봉선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50억원대 동구 지원배수지 공원과 사업은 반대 여론 때 밀려 중단한 상태다. 봉선 배수지 사업의 경우 올 제2회 추경 기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비(66억1100만원)보다 많은 75억 41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민선 6기 때 시작된 봉선배수지 사업은 당시 시청 내부에서도 시급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업이다.

기능이 비슷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사례도 있다. 시는 지점으로 땅속 상수도관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표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하시설물 검색 분석 시스템인 GIS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도 사실상 중복사업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광주 상수도 행정의 총체적 문제는 인력 구조상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소 성격상 승진과 교육 등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탓에 갓 승진했거나 사실상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공무원 등이 일부 배치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비전문가인 행정직들이 본부장부터 사업소장까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상수도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해를 상수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상수도 정책과 조직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전공대 초대 총장 최종후보에 윤의준

현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선임
"미래 에너지 연구 선도하겠다"

한국전력공과대학교(한전공대) 초대 총장 최종후보에 윤의준(60·사진)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법인 한전공대 이사회(이사장 김중갑 한전 대표이사)는 지난 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3명으로 압축된 후보자 가운데 면접을 거쳐 윤 처장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초빙공고를 낸 한전공대 측은 국내 29명과 국외 36명 등 65명을 사장면담·해외 방문 형식으로 직접 면담했다.

한전공대는 애초 '노벨상급 석학'을 초대 총장으로 데려오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내 인사 3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선정 이전에 한전공대 측이 언급한 연봉은 미국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100만달러+α(알파)로 알려졌다.

초대 총장은 대학설립추진위원장으로 대학설립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달 중 추진위가 구성되며 오는 2021년 3월까지 교원 확보 등 기본계획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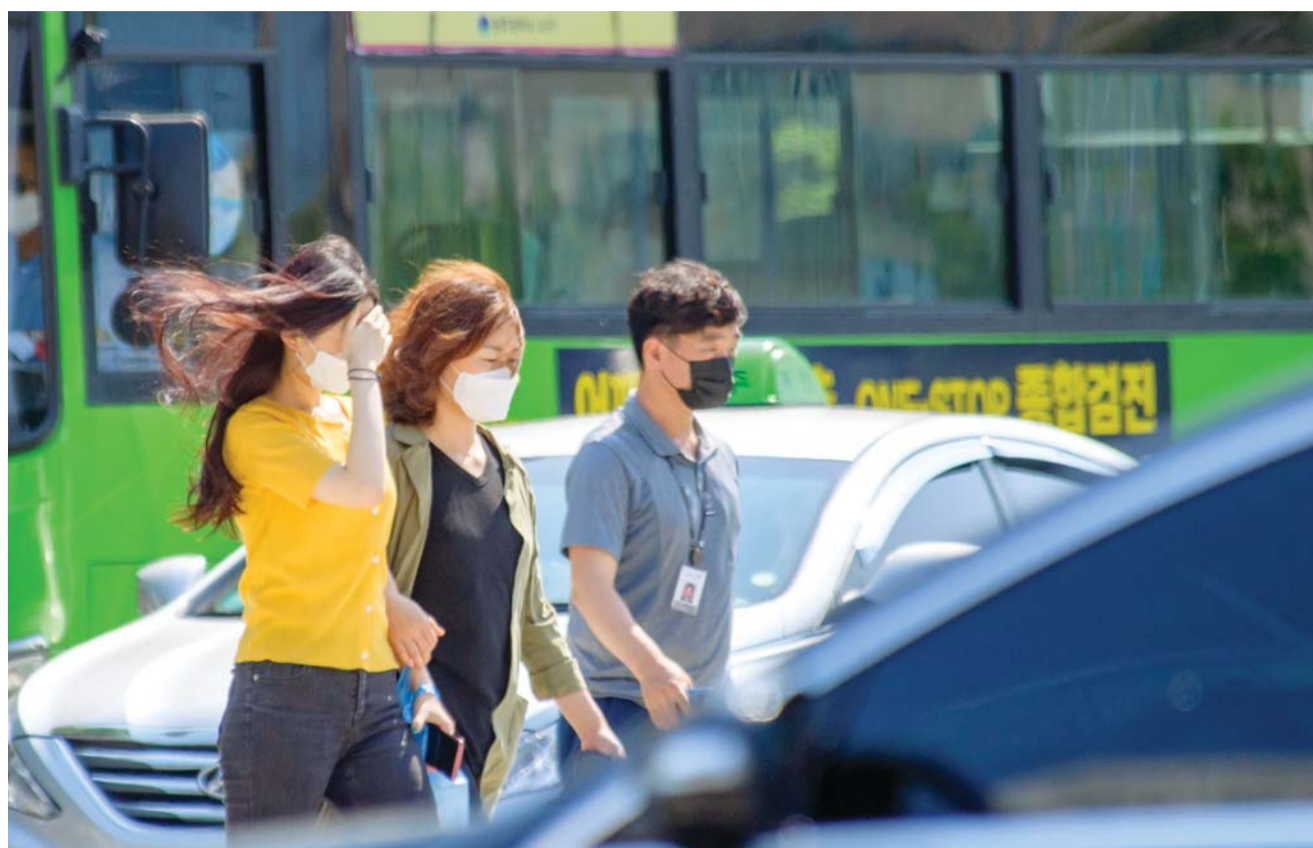


산을 세운 뒤 교육부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전자재료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과대학 대외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투자관리자 등을 지냈다.

윤 후보는 "한전공대가 글로벌 에너지 교육·연구 플랫폼으로서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더워요"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8일,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대의 손상 안 돼"

정의연 논란 관련
"후원금 투명성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및 정의연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의연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가 연대했고 어린 학생도 수요집회에 참여해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역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것"이라



문재인 대통령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며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피해자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위안부 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라며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의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 등교에 바빠진 보건의소 ▶6면

굿모닝 예향 - 전남의 '행복숲' ▶18·19면

KIA 온 전천후 내아수 류지혁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